



해외업계소식

마쓰시다, 휴대형 DVDP 신제품 발표

일본 마쓰시타는 도쿄 본사에서 신형 휴대형 DVD 플레이어 'DVD-LV65'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5인치 LCD 화면을 갖췄으며 SD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음악, 디지털 사진, 디지털 영화 등의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모토로라 中 투자 확대

모토로라가 대중국 투자를 강화한다.

실리콘스트래티지스는 모토로라가 대중국 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대중국 전략인 '2+3+3' 전략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모토로라의 이번 전략은 기존 '4 포인트' 전략을 강화한 것으로 '2'는 중국을 전세계 제조 및 R&D 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을, 앞의 '3'은 중국에서 반도체, 고속인터넷, 디지털 중계시스템 등의 3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또 마지막 '3'은 연간 생산규모, 누적투자액, 현지 구매 등 오는 2006년까지 달성할 3가지 100억달러 실적 목표를 가리킨다.

모토로라는 이와 함께 중국내에서 4000명의 엔지니어와 연구원을 새로 고용하고 10억달러를 18개의 R&D센터에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모토로라차이나의 신임사장인 팀 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모토로라차이나는 '4포인트' 전략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 전략을 통해 모토로라차이나는 중국 전자산업 분

야의 최대 외국인 투자기업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모토로라의 판매실적은 49억 달러에 달해 9년 만에 독일의 폴크스바겐을 제치고 중국내 500대 외국인 투자기업 중 1위가 됐다"고 덧붙였다.

모토로라는 현재 중국에서 휴대폰, 투웨이 라디오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막대한 내수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을 갖춘 중국 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내 외국계 전자기업들의 고정자산 투자는 214억위안으로 2000년 대비 20% 신장, 전체 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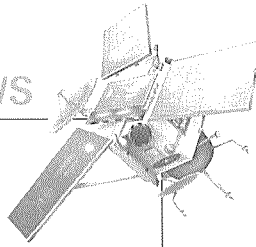
특히 이중 100대 외국계 전자기업의 고정자산 투자액은 171억위안으로 전년대비 30% 신장했으며 전체 외국계 전자기업 투자의 80%를 차지했다.

샤프, 납 없는 컴퓨터 개발

일본 샤프가 무연 솔더를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를 이번 주에 출시한다.

솔더는 칩부품의 단자에 코팅하는 재료를 말한다. 무연 솔더는 기존의 납을 사용하는 솔더에 비해 녹는 온도가 높은 반면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핵심 PC 부품들은 대개 열에 약하기 때문에 PC에는 무연 솔더보다 일반 솔더를 주로 사용해 왔다.

샤프는 녹는 온도가 일반 납성분 솔더 정도 되는 주석·아연 솔더를 사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 무연 솔더의 사용을 위해 회로의 설계와 부품의 배치도 일부 조정했다. 샤프는 이 기술을 일단 자사의 '무라마사' 노트북컴퓨터 시리즈에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 기업이 무연 솔더를 사용한 PC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샤프는 본래 작년까지 모든 국내 생산 제품을 납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무연 솔더 기술 개발의 지연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무연 솔더 기술의 개발에 따라 샤프는 내년까지 모든 제품을 납 없이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소니, 프로젝터 화질개선 장치 2년내 상용화

일본 소니가 프로젝터를 통해 영화관 수준의 생생한 영상 투영이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를 개발했다. '그레이팅 라이트 밸브(Grating Light Valve)'라는 이 장치는 일반 브라운관에 비해 색채의 재현성이 2배 이상 높다고 소니는 밝혔다. 해상도는 1920×1080화소로 고선명(HD)TV 수준이며 명암대비비율(콘트라스트비율)은 2년 평균 3000대1이다. 2년 이내에 전문가용이나 홈시어터용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그레이팅 라이트 밸브는 길이 34mm, 폭 6mm의 실리콘 기판 위에 리본 모양의 작은 거울을 늘어놓은 모습을 하고 있다. 전기에 의해 거울들이 움직여 3색의 레이저 광선을 회절,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한다.

이 장치는 기판에 6480개의 거울을 배열, 100만개 이상의 초소형 거울을 사용하는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 방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제조효율이 높다.

소니는 2000년 7월, 이 기술을 개발한 미국의 벤처기업 실리콘라이트머신으로부터 디스플레이 장치의 독점 개발·제조·판매권을 획득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빛의 회절이란 미세한 요철에 의해 빛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이다.

그레이팅 라이트 밸브에선 거울을 전기적으로 움직여 요철을 만들어 회절에 의해 투영하는 빛의 세기를 조정한다.

애플, 소비자용 CRT 컴 출시

애플컴퓨터가 당초 학교 컴퓨터 교육용으로 설계된 모델에 CRT 모니터를 장착한 소비자용 e맥 컴퓨터를 출시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이 새로 선보인 이 컴퓨터는 17인치 CRT 모니터와 700MHz 'G4'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앞서 지난 4월 출시된 교육용 모델과 사양이 비슷하다.

애플컴퓨터는 올해초 평판 LCD 모니터를 장착한 i맥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부피가 큰 CRT 모니터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필실러 애플 국제판촉담당 부사장은 "평판 디스플레이가 데스크톱 PC 모니터의 주력을 이룰 것으로 판단하지만 가격이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아 CRT 모니터를 지원하는 소비자용 새 e맥 컴퓨터를 시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텔, 무선 제품군 로드맵 공개 '원칩 휴대폰' 2007년 출시

오는 2007년께면 반도체 하나로 만든 휴대폰이 등장할 전망이다.

실리콘스트래티지스는 인텔이 오는 2007년께 '셀룰러폰온칩'을 내놓는 것을 골자로 한 무선 제품군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인텔은 이번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난해 DSP, 플래시메모리, S램, 휴대폰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주변장치 등을 통합시킨 무선 인터넷온어칩 제품군을 내놓았으며 지난 2월에는 무선주파수(RF) 부품을 마이크로프로세서 제품군에 통합시키기 위한 '라디오 프리 인텔(Radio Free Intel)' 개념을 선보인 바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인텔은 오는 2004년까지 플래시메모리와 S램 등 2가지 핵심부품을 통합한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내놓고 개별 아날로그 부품과 전력 관리 부품은 단일 아날로그 전력 부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 2005년께 베이스밴드에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RF 디바이스의 전송회로 등을 통합시키고 아날로그 전력 디바이스와 RF 수신회로는 아날로그파워라디오로 통합시킨다는 목표다.

수동 소자는 MEMS 디바이스로 진화한다.

2006년에는 휴대폰은 통합 베이스밴드와 MEMS/파워앰프 디바이스 등 2개의 주요 부품으로 이뤄지게 되며 2007년에는 하나의 반도체로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온칩(SoC)이 등장하게 된다.

인텔은 셀룰러폰온칩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아날로그, RF 등의 상이한 기술을 통합시켜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텔의 통신기술

개발 담당 최고 엔지니어인 알 파지오는 "당장 이들 요소를 통합할 수는 있지만 상용화에는 몇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며 "특히 RF 분야에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텔의 통신기술 개발이사인 그레그 옛우드도 "RF분야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며 "파워앰프는 가장 마지막에 통합되는 부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텔은 셀룰러폰온칩에 CMOS와 게르마늄실리콘(SiGe) 중 어떤 기술이 이용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모토로라, 필립스, 퀄컴, 스카이웍스,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휴대폰 등 무선 제품의 제조단가를 줄이기 위해 SoC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주요 PC업체, 10월에 태블릿 PC 출시

NEC·도시바·후지쯔·소텍·휴렛패커드제팬 등 일본의 주요 PC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XP 태블릿PC 버전을 탑재한 태블릿PC를 오는 10월 일제히 출시할 것이다.

이 신문은 태블릿PC는 무게가 약 1kg 정도이며 가격은 고급 노트북 수준인 30만엔 정도로 책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0년 MS가 처음으로 개념을 소개한 태블릿PC는 키보드 대신 특수 펜을 이용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특징으로 보험·유통회사 등의 외판원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고 있다.

MS는 현재 수기인식능력을 추가시킨 윈도XP 태블릿PC 버전을 개발중이다.